

聖句

심사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
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23 788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主 田 榮 澤

社説
創刊三週年を記念하여

이제부터 삼년전 역사적인
사변이 폭발하여 조국은 무서
운 참화가운데 빠지게되고 국
내·국외에 있어서 청년층의
사상계는 자못 혼란을 극한
중에 특히 우리 재일 교포의
사상적 동향은 몹시 우려되는
때에 본지가 홀연히 출현되었
다는 것은 진실로 그 의의가
깊은 일이라 할것이니 해외
정신운동이나 기독교와 우리
문화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특
기할 사건이며 기념할만한 경
사라고 할수 있다.

우리 주위는 아모리 어지럽
고 또 긴박한바가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내면
적 생활에 있어서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것이요 정신면
과 사상적 방면으로 살피고
궁구하므로 근처에 있어서 그
큰된것을 바로잡고 출발을
바로 하는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소쿠라테스가「문저 내자신
을 알아라」한 명언이나 예수
께서「너희는 문저 그나라와
그의(義)를 하라」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新生)」아
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수없나
니라」한 놀라운 교훈은 다
이 진리를 가르친것이다.
본지의 창간은 우선 전후의

東獨서失敗한共產政治
隱蔽 못할彈壓의罪狀

窒息狀態의人民蹶起

한국에서 반공포로를 석방하
였던 날 동부독일에서는 자유
독일 통일을 부르짖는 폭동이
이러났다. 이 두지역이 공산치하
에 드러났던 지난간 수년간이
自由롭고 평등 평화의 생활을
할수있는 처지였더라면 이번 사
건이 이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에서도 북한포로들이 북한
에 도라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응에 도라갈 고향집을 버리
고 한국에 충성을 약속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도망하였을가 하는 사실과
十四日には 국가반역죄로 투옥
하였던 사람四千二百九名을
석방하고 불응간에 다시千五百
名을 석방하리라 한것으로가
그들의 경과를 알수있는
일이다.
그들은 탄압속에서 죄를 지
었다. 농토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농토를 몰수하고 농산물을 몰
수하고 세금은 가혹히 징수하
였으며 정적하고 근면한 인민
대중을 도라보지 않은 죄악을
파었던 것이다.
둘째는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매매하게 국민에게 죄를 얹어
씨뒀던 것도 그들의 죄다 셋
째는 일하기 싫은자는 먹지말
는것이다.

과는 정체를 세우고 불응이와
부녀들의 애환을 고려한것이
반공교육을 강행한 것이고 다
섯째는 한 동포인 서부독일을
적대시하게 만든 죄다 여섯째
는 부모형제로 하여금 골육상
쟁게하며 피차가 밀고하게 만
든 죄다. 일곱번째는 모든 자
유를 박탈하여 발전 향상의식
을 저하시키고 식량위기를 이
러한 책임이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포린이 자유진
영 전조지인 한국에서 무력으로
실패하고 서독에서는 통일
을 갈망하는 민족심리를 이용
하여 정권을 완화함으로써 서구
라파에 불려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에 폭동으
로 평화공세의 무대가 크게
무너져서 세계에 우습게리가
되고 만것이다. 이제 포린공세
가 어떠한 나을것인가 주목되
는것이다.

누슈케東獨副首相引渡
基督教民主黨書記長에게

서부독일에서 DPA 통신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동부독일정
부 부수상(東獨副首相)이며
동부독일기독교민주당 책임자인
우토·누슈케는 17일 오후에
메오데의 감관으로 서부독일에
피난하였다한다.
그는 금년에 七十세인데 동

부독일 기독교민주당 당수다.
一九一九년에 그의 외이탈공화국
국회의원이었는데 나치스정치
시대에는 감옥에 가쳐있다가
제2차대전후에 동부독일 기독교
교민주당에 참가하여 일곱부터
동일사회당(공산당)과는 사이
가 온사함이었다하며 一九四八

재일 한인 교회의 부흥과 발
전을 뒤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다음에 복음의 말씀으
로 신앙적 위안과 심령적 신
생과 생활개변의 빛이 되며
아울러 기독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의 방향을 제시하면
서 시대의 올바른 판단을 주
기를 힘써 왔다.
그러나 이상에 말한 일은
어느 하나나 그리 용의하게
될것이 아니니 세상에 가장
힘들고 졸연히 공이 나타나지
않는것은 정신운동이요 문화사
업이요 누누히 말하는 바이지
마는 그중에도 우리 한민사이
의 문세운동은 외국사람이 이
해할수 없을만큼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는것이다. 따

라서 그동안 우리의 곤난과
장에는 진실로 형언할수 없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역량이 부
족하고 더욱이 본국과 달라서
재일 교포간에는 이 일을 힘
력할 인물과 손이 부족한데다
가 다시 경제적인 곤난이 따
르므로써 우리가 스스로 계획
하며 의도하는바도 뜻대로 되
지아니하리니와 여러분의 기대
하시는바에 대하여 만족하도록
응하지못한것은 유감천만이다.
이제 본지 창간 삼주년을
당하여 재일 교포와 교회들
위하여 이만한 귀한 기관을
세워주시고 또 그동안 여러가
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捕虜二萬六千名釋放

KP 공군이 전하는 바에 의하
고 21일까지 만공포로들 석방
한 총수는 二萬六千二百三十九
명이라고 한국정부공보처에서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다시
국군군에 재포로된 사람은 八百
六十六名이고 국군의 포로로
(榮德) 죽은자가 四十四名이
며 중상된자 十五명에 달한다

原子彈開鑿

死刑에서 轉刑後
아메리카에서는 원자탄의 발명을
공산국가측에 제공하였다는 혐
의자 로렌버크 부부를 지난
년 九월에 전기로 사형집행을
받았다.

政府에報告되는自己批判

中共治下の宗教活動

아메리카 기독교 연합회(N
CC)의 국제전도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공치하(中共治
下)의 종교정책에는 다음과 같
은 사실들이 있었다 한다
연에는 기독교인 주당당수가 되
어 지난 一월에 스카이라는 연
의로 제포되어 고발된 메아
카외파는 동지였다.
또 十九日의 국공협정은 유슈케氏
는 十九日 낮에 동부독일 경
계선에서 동부독일인 주당 서기
장에게 인도되었다 한다.

유지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
감사하며 다음에 해외에서
본사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리스도
인 안에서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찬조해주신 여러분에
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특히 재일 대한기독교 총회
의 간부와 일본각지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와 직원 여러분
의 본지에 대한 성의를 깊이
이해하며 그밖에 본사의 사업을
추진하여주신 동포여러분의 호
의를 명심하며 감사하는바이다
끝으로 이미 독자 여러분과
본사의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하였다.
이 사람을 사형집행 하지 않
라고 아인슈타인 같은 자유인
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자는 물
론이 아니라 로마교황까지도
助命을 요청하였으나 아메리카
우익에서 "하도라도 속히 처형
하라 그들 때문에 韓國전쟁도
이러났다"는 주장이 강하게
"저들은 우리다"하는 우익의
"스카이프워"는 별종으로 하고
死刑이란 것은 부당하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독살의
고 만되었다.
이 스카이프워는 一九四四年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할때에
발생한것이고 一九五〇년에 이
부부가 제포되었으나 그들은
거부하고 최후까지 正當는 억
박되었다.

福州에 모였던 종교적회의는
중공정부 종교부장의 명령으로
인민회의에 종교단체대표 六名
을 파견케 되었다. 종파별로
선출한 인원은 푸로레스탄트
三名 불교二名 개톨릭一名으로
되었다는데 이렇게 대표들을 부
른 종교부장은 "공산주의의 인
주적방법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차이점"에 관한 일종의 연설
을 한후 금주의 활동에 관한
三조항이 제시 되었다.
(一) 현명한 정치적 태도를 취
하고 제국주의 대항에 협력하

은 하나남께서 세워주신 기
요 재일 六十만 교포의 정
신적 지도기관이요 교회와 교
우의 중심인 변으로 지금까지
부족한 것을 길어온 본지를
가상이 여기고 또 귀중히 여
겨서 또한 이 사업의 필요성
을 더한층 인식하여 더한
층 본지에 관심을 가지고 협
력하며 전달해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우리로하여금 허공
을 치는 설움을 면케하며 앞
으로 더욱 힘을 얻게하고 결
국 일본에 있는 우리교포가
본지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받도록 되도록 본지의 영광스
러운 앞날이 돌아오기를 축원
하는 바이다.

사에 맺힌다"하고 三三年간
구금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형집행 들어가는 그의 옆
에서는 유대인목사 아·비·고
솔로·프가 구약서전 十五장
三十一절을 읽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권고 하였다고 한다.
사형집행 한시간 전까지 무
엇을 하든가 하라"고 하는
인민회의장회의 대우를 받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든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 아·비·고
솔로·프는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 아·비·고
솔로·프는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

國連經濟復興團活動開始

國際兒童勞動食糧機構도

워싱턴에서 전하는바에 의하
면 국제연합은 공산축이 휴전
에 동의하고 한국에 평화화
오게되면 황폐하여진 한국 경
제재건에 관한 수년간의 계획
안을 즉시 실행에 착수하리라
한다.
한편 아메리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14일
까지를 "한국구제주간"으로 전
국민에게 선포하고 한미재단
원조자금 五百萬달러 모집운동
에 협력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구제주간에 동안 금품은 한국
에 병원과 고아원과 학교등을
재건하는데 사용할 것이라 한
다. 이 운동의 동기는 전년에
한국 실정을 조사한 뉴·욕대
학 물료(一物)조사단이 뉴·욕대
뉴·욕 타임스 부주필인 하워
드·라스크바사의 현지보고서
에 의하여 이리진 것이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는

기대 사람은 정형되고 말았다
이 같은 극한 사형집행은
아메리카 역사에 있어서 처음
으로 되는 일이었다 세계각국
에서 조영운동도 있었기 때문
에 의문도 제기 아니하다
六名의 神父團에 信任
一九五〇年六月二十五日에 한
국전환이 발생한이때 재물악에
서는 급변에 처음으로 六名의
신부(神父)를 파견하였다. 그
들은 전후 조선반도에 속한
전교사들인 六名을 四名은
전라남도 光州교구에 가고 두
사람은三八선에서 가문은 使用
교구에 배치되었다. 한국에는
이런 六名의 신부까지 합하여
三十八名의 활동반원이 전도
하고 있다

노동기구 식량농업기구등에서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금주 자
유한국 경제재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국인으로서 말할수있
다면 이번전쟁이 한국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은즉 국권각국
은 한국재건에 의무를 지고
활동하기 바라는 것이다(一)
○압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는 민
중의 부
르짖음.
민중의
부르짖음
부르짖음은 민중의 피눈물은 운
동이 서민에는 배에서 동
면에는 한국에서 동시에 맹
렬히 전개된것은 이상한 현
상이다. 이것은 인류의 공통
한 양심의 부르짖음이요 하
나만의 시키는 움직임이
아니다.
○현재 동북 백린에서 심
박의 데모대가 마츠네 앞전
히 활동하여 도처의 적기
를 내려서 불사르고 이빨
한 반공데모와 스트라이크
전통속에 확대되어 기차의
운행은 거의 정지되었다. 본
국에서도 중공학교 대학교
각 단체를 중심으로 각층에
피화까지 출동한 휴전반대의
데모는 맹렬히 계속되고 있
다고 하며 이번 이대통령
의 명령으로 반공포로의 석
방으로 문제는 마침내 심각
하였었다. 이리하여 이번의
미국의 휴전안은 온전히 큰
공경에 빠졌다. 미국인중에도
이 휴전의 불합성을 인종하
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휴전을 반대하는것은 평화
의 반역자로 배격을 받기도
쉬우나 덮여놓고 평화라는
무모한 짓이 도리어 더 큰
화를 끼치는 원인이 된다
가 역사상에 뚜렷이 있지 않
으나 일차대전때에 영국이
히틀러에게 양모한일 그보다
도 최근에 마살이 중공과
국부로 손을 잡게 한 일이
얼마나 큰 화를 이르게 했다



望臺聲

破壞戰爭停止に努力

WCC 聲明發表の餘波

再建으로共產威脅에對應

한국전쟁에 관한 WCC 聲明
이 발표된 후 세계교회의 여론
에 주목할바가 있는데 그 요
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
의 회중양위원회는 「한국에서 전
후가 현재이상으로 확대 안되
도록 국력은 감시할과 동시에
사회시키는 노력을 하라」고
전고성명을 발하가 있었다(一月
세계교회협의회가 一九五〇年
七月에 토론토에서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력의 군사행동을 적
절한것이라고 하였기에 많은
말성을 이르렀으나 금번에는
그 선을 넘어서 평화에 노력
을 하라함으로 전번 성명에
반대하였던 로마디카와 조지
파 같은 입장에 있던 항가리
1 개척교회와 베레키 같은 사
람들도 지지하며 이런 호소야
말로 그리스도교적 표현이라
하고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
으나 한국전쟁을 속히 정지시
키자는 의견에 반대는 없을것
이라」 감조하였다 또 그는 다시
말하기를 「정전의 길은 사회의
외에는 없을것이니 그 사회의
방법에 있어서 아메리카 그리
스도인들의 절미진 책임은 중
하다 고하였다.
아메리카의 양심
그러면 아메리카 그리스도인
들의 관심은 어떠할가 크리스
찬. 샌츄리니씨가 여론조사한바
에 의하면 대표적인 지도자들
의 의견은 다음과같이 요약
할수가 있다.
아메리카 기독교인들은 아
전후의 대동성의 아세아정착중
공산주의를 조추되 아세아에서
는 아세아인에게 맡기자는것파는
달리 냉정하고 선중하며 성실
히 한국전쟁의 확대를 방지하
고 전후를 정리시켜 화해케
하자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그런 의견의 제창자들중에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기독교적 전술이 있다면 사
랑과 이해와 동정적 인내와
용서에 용감하여야 할것」이라
하고 「군비보다 기근자들을 구출
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외에도 「한국전쟁의 정지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하며 「정지방안은 현명

停戰을希望하는動機

勝算없는戰爭의損失莫大

이와같은 견해들의 출발점은
「전쟁을 계속하면 인간의 자
유가 유린을 당하고 군대에
나간 청년들의 도덕이 부패하
여지고 아메리카의 아름다운
이와같은 견해들의 출발점은
「전쟁을 계속하면 인간의 자
유가 유린을 당하고 군대에
나간 청년들의 도덕이 부패하
여지고 아메리카의 아름다운

世界傳道會議準備進行

韓國에서도十五名參席豫定

「니이는 땅끝까지 가서 모
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표어로 활동하는 「청년을
그리스도에게」 전도단이 주체가
되어 금년 八月九일 부터 九
월 일까지 동경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 대거전도운동을 전
개하기로 하였다는데는 이미
본지에 보도한바이어나와 그 동
안 앞으로 임박한 이 대회를
위하여 준비회의를 거듭해 오
는바 지난 六月十八일 오전
十時부터 도내 마루노우체 동
경회관에서 모인 준비위원장과
본부중앙위원과 남녀 선교사들
이 최후의 회의회를 열고

은 안영준(安榮俊)목사와 본
사주필 정영택 목사가 참석하
였고 이제 八月말에 열리는
대회에는 한국에서 장로교측
이려영 박치순 김현정 김치선
김래민 명선홍 김리교주 박재
봉 조경우 등의 합十五인이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에 있는
한국 교역자와 합세하여 동경
부근과 지방 각처에 우리교포
가 많이 집중한 곳에 따로
전도집회를 열게 되리라고한다
끝으로 동대회준비위원의
한사람인 커진씨의 말을 들으
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치 이번 대회에 대한 성원
의 열이 자못 높은데 이미
각 항공회사와 三대 방송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되었고 최근
에 참가하게된 대표중에 테네

權力

니고, 다만 그 관습과 보편성
에 의하여 보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안을 물론하고 공
된 한 가지의 정서법(正書法)
이 요구되는 것이다. 영어가
소위 「영어국민」
사이에서 그와
같이 광지역에
또한 일정하게
쓰이는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다. 지금의 맞춤법은 우리
말을 일정하게 적을 수 있게
된 획기적인 것으로서, 다행히
그 자체가 과학성을 띠고 있
으며 모든 출판물이 일정하게
쓰이게 됨으로써 일정한 맞춤

한 의교에 기대한다 그것은
죽은보다 용서와 인내가 승려
의 무기라 될것이라 하였다.
R. 니버(R. Niebuhr)도 한국전쟁을
세계적 전후의 일부라고 하면
서 그러나 확대되지안도록 하
여야한다고 하고 기독교의 최
선의 평화적 노력을 이때에
이르켜야 한다고 부연한바가
주목된다.
중산층이 하였으나 군사행동안
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기대
수 없다 전면적인 승리를 하
려면 한국전쟁을 확대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런지 모르나
그것은 현재보다 더 방대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그런 이익없는 전란을
어서 명에듯하게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는
악한것과 싸워야 한다마는 공
산주의만이 우리의 직면한 유
일의 악이라고 함은 위험한일
일이다. 우리는 그와동시에 자
기악과도 싸워야 한다」고
그립피츠는 말하였다.
또 어떤이는 「공산주의 존재
의 가치와 그 의의를 몰바
루 아려야하고 그 이데올로기

시립대학의 찰스 마스빈교
수와 해병대 장교로 한국전선
에 출전하였는 그리피츠씨가
이미 도착하였고 그밖에 각국
에서 참가할 대표가 약五백명
일본국내에서 참가할이가 약
一千五百명이 되리라는대 「일본
청년회관」전부와 그밖에 여러
호엘이 이미 그 속사로 제공
되었고 대판에서도 이미 七千
명 수송할 대강당이 준비되었
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집회를 돕기
위하여 영화전도단과 미국대학
선발운동단과 미국과 그밖에
각처에서 유명한 종교음악가들
이 많이 참가하게되고 동경에
서는 이미 대표적 교회음악지
도자들의 지도밑에 성가대가 열
다섯이 활동한 대성가대가 열
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한다.

三 글 맺 음	2 글 고 의	1 칭 찬 의
	말	말
13 4 15	9 1 12	2 1 8

論壇

基督教와 貧富問題 (一)

牧師 嚴堯燮

빈부(貧富) 문제는 결단코 현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다. 구약에도 이러한 문제의 기록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회람의 창립 프래이토의 기록에도 몇몇 수가 있다. 즉 예미야 22장 13, 16을 읽어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지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고가(雇價)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그가 이르기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들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배향복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나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앞이 아니나 여호와와 같이니라" 하였다 이 말씀에 특별히 나타난 사실은 이웃을 고용하고도 고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었다 현 대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노동력 착취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 4, 6에서도 읽을 수 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곡물에 주지 아니한 것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우리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온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었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보아 가히 그 당시의 토지 소유자들의 난폭을 엿볼 수 있으며 노예들의 고달픈 생활을 능히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이제 성경의 예 회람 창립 프래이토의 유명한 책인 리퍼브릭(Reproblic)을 읽어 보면 "보통 도시에는 두거리로 나누어져 있다 즉 하나는 가난한 거리요 또 다른 하나는 부한 거리인데 이들은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좀 더 현대적인 표현이 나타났는데 즉 빈한 자와 부한 자간의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전의 기록에서도 이러한 현대적인 내용의 빈부문제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쩌서 이 빈부문제란 즉 우리가 원치 않는 사실이 인류역사가 오랜과 함께 병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취급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면 빈부의 간격이 생겨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것을 장간 고찰하려고 생각한 다 이 원인은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는 생리적 원인(生理的原因) 이요 둘째는 정신적 원인이며 셋째는 사회적인 원인이다

1 생리적인 원인 사람의 육체가 나면서부터 허약하여도 저지 생존경쟁에 부닥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육체적인 건강문제만 아니라 두 사람의 차이도 있다 그러면 학자들은 가난하게 살다 죽은 사람과 부자로 살다 죽은 사람의 차이(差)와 구조를 해부해 본 결과 역시 가난하게 살 사람의 뇌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 정신적인 원인 역시 나면 서 정신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정상에서 정신병의 걸려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는 일이 많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원인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중세 기독교에서도 그러했고 동양철학에서도 빈한 생활을 고상하게 보는 교육이 있어 이러한 정신이 많이 지배하는 사람 또는 민족은 가난했고 그와 반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과 민족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3 사회적인 원인이라 사회조직에 있어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지 못했었다 다시 말하면 부자집 자식은 계속해서 부에 대한 기회가 있고 가난한 집 자식은 그러한 기회를 극히 만나기 어렵다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學校座 敎授 敎師

敎授結果의測定

魯安理

(六)

(라) 判別(判別) 테스트. 이것은 정(正) 혹은 오(誤)를 판단하는 방식도 있고 그밖에 우(優) 양(良) 가(可) 불가(不可) 등의 판정을 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다. 큰 학생들이면 점수로 매길 수도 있는 것이다.

(예) 다음에 쓴 해설을 비교하고 감을 베풀 정의를 판정하라.

(a) 어떤 소년이 길가에서 두 백원을 훔쳤는데 그것을 자기 써 버렸다.

(b) 그는 그 돈을 친구에게

(마) 작문(作文) 문제 몇개를 제출하여 그 중 하나 혹은 둘을 택하여 작문을 지어 오게 하는 방법. 물론 그 작문은 순전히 학생 자신의 힘으로 지어야 하고 참고서나 남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알리고 같이 써 버렸다.

(c) 선물을 사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d) 교회에 바쳤다.

(e) 곧 어머니에게 주은 보고 들 하고 그것을 잃은 사람을 찾아서 돌려 주었다.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부자의 이익을 함으로 완전히 보장하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법적으로 보장의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다. (계속)

密酒(密酒) 二百三十萬消費

한국은 두해나 계속하여 격심한 한재와 중재 주재로 식량의 최저목표량 생산도 달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동종에서는 술부리와 나무젓가락을 끊어 연명하는 형편이라는 데 한편에는 막대한 양곡이 밀주(密酒)에 소비되고 있다 사세청에서 지난 일년에 밀

講壇 信仰

동서양을 불문하고 예로부터 신앙의 공명으로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기도로 병이 낫는다 하는 종교도 흔히 있다 그것은 대개 웅만한 유행병 전염병같은 피질은 어떤 신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고 신이 접해서 되는 것으로 믿는 미개한 시대의 생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혹은 주문으로 혹은 기도로 그런 사실을 물리치므로 병이 낫게 한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지금도 일본에는 병을 고친다는 소위 종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건강을 준 다는가 병을 고친다고 해서 우매한 사람을 미혹케 하는 일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고물이 가치 있는 기회에 종사하게 되기까지는 만족하여서 안 된 것이다.

연구 문제

一. 여러분이 말은 학생 혹은 다른 부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알게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二. 여기서 생각한 측정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금년 동안 사용하려는 것을 두세가지 택하라 필기 시험이나 테스트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잘못이다.

三. 이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 편에서 고칠 것 혹은 첨가할 것은 없었습니까

이 강좌를 一年半 동안 담당 지도하여 주신 魯安理 先生과 동시에 계속하여 읽어 주신 독자들께 감사 합니다.

주제조를 조사한후를 보면 정
가 총수는 三萬三千三百九十八
員에 미치 九千九百九十一
石과 장곡 二七萬七千三十四
石에 달한다. 一百十八萬六千石에
달하였다. 한다. 이 양곡을 한
사람에게 二合五對씩 배급한다
면 一百三十萬名을 일년간이나
먹일수 있다한다. 이것은 경
수상표준이 거니와 이외에
도 말과 양돈과 양과 양과
파를 만드는 양곡을 계산하
면 놀라운 숫자에 달할것으로
보는데 전사하여 군주인 동포
를 생각하여 자숙이 요청되는
바이다.

과 健 康

은 없다 기록에서 언제나
가르치고 부른것은 것은 사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
어서 하나님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갱생하는 은혜를 받아서
전보다 변한 깨끗하고 행복
생활을 하라는것이다. 이것이
기록의 신앙의 근본태도요 가
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토리를
통하지않고는 마도도 참 신앙
에 들어갈수 없고 참 신앙을
설치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경건은
고생과 내생의 언약을 보전하
고 또한 법사에 유익하니라」
하여 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일
에 유익한것을 가르친 바가
있거니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 또한 우리 육체도 돌보아
주신다. 불쌍한 죄인을 구해주
신 예수께서는 또한 동시에
어려가지 병자와 불구자도 고
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런으로 그 마음에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기쁜
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진은혜를 우리 몸에도
받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를 진실히 믿는
신자는 다른 사람보다 비록
건강하게 지낸다 비록 병이
났다가도 얼른얼른 나아버린다
그것은 마음에 거림이나 고
통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스도
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병자

와 쇠약한 자의 종은 친구인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를 믿
는 사람은 비록 적 무병하고
평안한가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경으로 병이 생기는
일이 없다 옛날 중국에 어떤
사람은 어떤날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에 걸린
그림자가 술잔에 비쳐서 병
이 보인것을 그냥 먹고 병
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고 의
질이 병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호열자에 걸렸다고 근심이 되
면 사실 병이 나날수도 있고
장실부사에 걸렸다고 비관하
가 정말 장실부사가 되는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
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언이
사람에게 병을주시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시는 일이 없는
줄을 믿기때문에 공연한 의심
과 걱정을 아니하는것으로 병이
생기는 일이 적은것이다.
둘째로 세상사람은 함부로
몸을가지고 정욕을 따르 성
을 잘 못하므로 병이 나는
수가 많으나 신자는 극기와
절제를 함으로 병이 나는일이
적고 병이 나더라도 쉽게 낫
는것이다. 흔히 술때문에 생
는 병이 많은데 신자는 금주
를 하는것으로 그런 화를 당하
는 일이 없다.
셋째로 신자는 비록 병이
나더라도 당황하지않고 모든것
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여
고요히 정양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다.
「참새 두마리가 한통에 팔리
는것이아니나 그러나 저 두마리
가 한통에팔리는 참새도 아비
지의 허락이없으면 하나이라도
방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많은 한새보다 귀하리라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지
키지 아니하시랴(마태+장二九
「천사들이 내 앞에 너머지
고 만사람이 내 앞에서 죽을
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것으로 두렵지 아니하다」
것이 신자의 굳은 신념이다
(시편 九一四七절)
어떤 믿는 부인이 중병으로

우리가서로 믿을수 있다면

張利郁

(下)

여러분 오늘날우리사회에있어
개인으로서나 단체로서나 서로서로
의존해있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렇게도 서로 믿을수가없는
현현이라면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文化 그밖에 모든 운동
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것인가
는 너무나 상상할수있을것의
을사다 이제 일상생활에있어서
자연계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중대성을 더욱 독
특히볼수있을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활동을 비롯하
서 그밖에 천만가지 활동은
다 우리가 자연계의 법칙을
인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순
응하고 이용함으로써 되어나
는것이 옳사다 만일 우리가
큰 길에 나서서 할거를한거를
발을 내며 드림에 갑자기
당히 꺼져드러가는 일이 있지
나 않는가하고 이땅이 우리발
거를을 지지해줄자를 믿지못한
다고하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
게될것입니까. 다스한 불철이
세번이나 개복수술을 하면서
위험한 치료를 받았으나 생사
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
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리라」
하여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안심하여 치료를 잘 받으므로
가죽까지도 감화를 받은 일이
있다.
예전에 영국에 「뉴만」이라는
천주교 주교는 중병에 걸려서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단념을
하였건만 「나는 영국을 위하
여 일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죽지않는다」 하였고
는데 하나님은 과연 뉴만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서 큰 활동
을 하도록 한 일이 있다.
신앙과 심령의 구원은 확실
히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는데
은 예로부터 위대한 종교가들
이 체험한것이다 우리의 심령
을 구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윤신의 병을 고쳐주셨다.
(야곱보五〇三—一五)
(編輯室)

온다음 무더운 여름과 서늘한
가을이 순서를 따라 오지않고
지운 여름이 온저 오는
일이 몇천년동안에 한번이라도
있었다고하면 농부가 어떻게
안심하고 농밭에 씨를 뿌릴수
있을것입니까 물론 언제든지
百度的熱을 加하면 끝없는것이
〇度까지 차게하면 어느것이
오날은 五十度에서 최고
도 그 다음날은 三十度에서사
도 열없는일이 없는것이옳지
다. 그러나만큼 중기간도 만
을수있고 또 다른 모든 기
를 만들어 이용할수있는것입니
다. 자연성은 이와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였을니다. 한
이러도 우리의 속인일이 없었
을니다. 이 신념이 우리로 하
여름 우리의 불철연의 생활을
안심하고 하라는것이 옳사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가
라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과
부흥을 성취하는데있어 그 기
초적이오 또 제일차적요소는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민중을 믿고 또 국민정체가
서로 믿을수있도록 하는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달리하
는 모든 정당들도 이 정에있
어서는 그 이해가 다를수없을
뿐아니라 모도가 이것을 그
군부 정강으로 삼아야할것이오
또 정부로서는 행정부문에있어
각양각종의 정책과 계획을 수
립하고 또 그것을 적극추진할
것이지만 서로서로 피차 신임
을 가질수있도록 하자는 이
정신이 또는 그 구체적방법이
서는 아니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없이 무슨 훌륭한 정강이
나 정책이나 입안이나가다
나 없었다는것은 본연한 현상이
아니오니까
해방을 얻은이후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어느정도 인종되었을 기회로해
서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물
론하고 말도 많이하였고 또
글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성면서 무슨 선
언서 성도문 전정서 결의문
취지서 등을 비롯해서 반박문

작성한 것으로 보아 우리국민의
정신은 대단히 높고 자유의
정신을 가진것입니다. 몇천년
이온것입니다. 몇천년동안
에 이느모양으로인지 이까지
기을 위해서라는 말이 발표되
어있는것입니다. 몇천년동안
에 이느모양으로인지 이까지
다들이 군사해본다고 할지라도
의지대하여는 어느 하나 이
도 그 의지가 없을것입니다
그럼에 이것까지는 그만큼
은일이오 잘못되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것이
생각하여야할것은 이 모든 정
당정책 성면서 선언문 혹은
광고문까지라도 누구 몇사람이
그것을 믿느냐하는 점이옳사다
같이나 말도 발표된 그 주장
그 주지를 우리가 사실 믿습
니까 아니믿습니까! 우리 각자
스사로의 정견을 이제 검토해
봅시다. 이러 이러한 동기에서
도 이러저러한 목적을 위해서
라고 명백하게 써여있지만 우
리는 흔히(홍) 하는 코 중
류를 치는것으로서 그것을 믿
지않는다는 태도를 암시하고
「말만은 훌륭하지」 하는말로
서 모든것을 부정하는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의
사정이 이렇다고 할것같은면
이 정세부터 개선하는것이 급
선부의 일이될것은 분명한것이
아니오니까 몇몇말을 배여가
면서 만드려놓은 어떤 명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태도를
그냥두고는 그것은 지상공물이
될것아닙니까 천만마디의 장광
설을 둘러 떠들지라도 그것은
어느 누구의 성대만을아프게
한 헛수고가 아닐것입니다.
그런으로 이제 나는 「오늘
우리나라사정을 곰곰히 생각하
여볼때 우리의 통일과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하여야할일이그
야말로 천이요만으로 허다하지
만 이 하여야할일의 그 근본
조건은 우리국민의차가 서로서
로 신임을 가질수있게 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로 믿을수있다면 우리가 오
당연한 모든 어려운 문제
도 어렵지않게 해결될것을 믿
기때문이 옳사다. 그러면 어떻
게하면 우리가 서로 믿을수있
어서 피차에 무더운 신임을
가질수있는가 하는것이 생각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끝)

休戰은되는가?

李大偉

休戰이라하는 말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때때로 듣는 말이지 마는 어느 때에 되며 또 어떤 모양으로 된다는것은 세인에게 아주 크나큰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일종의 수수께끼이다 왜냐하면 회담이 출발된지가 벌써 二年이되었고 그동안에 회합도 실로 數百차이었던것만 아지도 끝을 보지못한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넉넉히 짐작할수가 있는 것이다 과연 그 얼마아마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影響을 주고있다。英、美、佛、蘇、四國對奧스트리아平和條約은 過去七年間 正式交渉 二百五十八回이었지만 그야말로 뿔뿔뿔뿔한 맥이 도모지 되지아니하고 질질 끌여오는것을 七年동안이나 끌어오면서 아직도 蘇聯은 오스트리아 동편국경에다가 蘇聯병五萬명을 배치하고있는것을 보고있지아니하는가? 이런때문에 이것을 잘 인식하는 한국민이 오늘날 저렇게 사력을 다하여 통일있는 휴전에 반대하는것이다 六二五동란을 겪어 보지못한 그 누구로서든지

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발서 토의적 단계에서 넘어서 실천화하게됨 되여가니 불가능한것보다도 차라리 가능한 편이 많다. 다만 문제는 휴전이후의 정치문제 여하가 우리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것이다. 그러면 휴전이 되느냐 이번 동란은 첫째로 공산진영의 오산을 기초로한 일종 투기적으로 나온 장난이었던때문이다 본래一九五〇年二月初에 세계노동대회라는 명목으로 북경에서 세계혁명을 꿈 꿀때에 그들의 상투수단인 세계에서 가장 약점되는데가 어디냐하는 것을 찾을때에三八선을 경계로하고 좌우가 상쟁을 마치 아니하는곳이 남북한이었다 때 는 美國국무장관 애치슨이 동양정책을 논할때에 극동의 방위선을 논하면서 한국이 권외에 있었든것이였다. 그러므로 한번 밀고 내려가기만하면 英國은 물론 더구나 부자집 미국이 간여할줄은 그리 생각지 아니하였든것이다 그래서

약상 밀고 내려가니 불과 三日 내로 두루만大統領의 긴급한 제안으로 연합국의 경찰력이 발동이 되었든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스탈린의 제1안의 실 패이다 그러나 연합군이三八선을 넘어 평양으로 압록강까지 쳐들어갈때에, 그때쯤 중공에서는 장介石정권을 내왔는지 얼마되지아니하여 방금 내부 숙청을 시작하려는 참라에 어 떤 포크를 찾지못해서 허둥거 리는차에 미국이란 거대한 물

義

古詩調鑑賞(2)

내 해 종다하고
남 실은 일하지말고
남이 한다하고
義아녀는 좇지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대로 하리라
註. 양심을 속여서 불의를 좇지말고 본성대로 하려는 마음을 읊다
가마귀 검다하고
빠로야 웃지마라
검이 검은줄
속조차 검을소나
검히고 속 검은이는
내야 권가 하노라
註. 네가 네야말로 그런가한다
△검은 깨끗하고 그럴듯해도
속이 검은 사람을 두고 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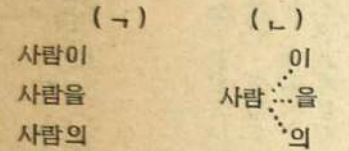
李 穰

下季良

한글교실 (제12시간)

張 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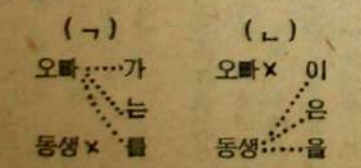
(2) „토”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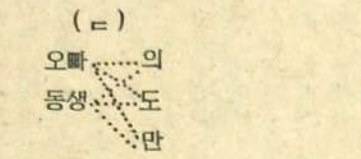
이()의 „사람이, 사람들, 사람의” 들은()과 같이 „사람”에 „이, 을, 의” 들이 붙은 것을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붙은 임자씨가 어떠한 자격(資格)으로 쓰이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형이 동생을 꾸짖는다.
→ 동생이 형을 꾸짖는다.
이와 같이 →의 „형”이란 말은 꾸짖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의 „형”이란 말은 꾸짖음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그 아래의 풀이말에 대한 관계는 „토”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토가 임자씨에 붙을 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어느 누가 주장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말의 법칙입니다.



이()과 ()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을 보십시오. „의”도 만()과 같은 토는 몇 말의 끝에 받침이 있으나 없으나 가리지 않고 붙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바와 같이 임자씨와 토가 붙을 때에는 임자씨와 토의 제대로의 끝(모양)을 깨뜨리지 않고 각각 구별하여 적어야 할 것이지만, 임자씨와 토가 어우를 때에는 소리기 서로 타여 따로따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면 틀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곧 임자씨(體言)의 끝소리마디에 받침이 있는 말에, 홀소리로 시작하는 토 „이, 을, 에서, 의...” 따위가 붙을 때에는 그 받침(끝소리)의 소리가 토의 홀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이어납니다.

(임~토) (말소리) (임~토) (말소리)
약이 야기(藥) 약을 야글
집이 지비(家) 집을 지를
꽃이 교치(花) 꽃을 교출
잎이 이피(葉) 잎을 이플
흙이 흙기(土) 흙을 흙글
값이 감시(價) 값을 감슬
또 위와 같이 받침 있는 임자씨에 닿소리로 시작하는

지나간다.